

메시, 85골 뒤편 넘어까

“불가능,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축구황제 펠레의 75골을 넘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독일 폭격기’ 게르트 뮐러의 한 해 최다골 85골에 도전한다.

메시는 21일(이하 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러시아)와의 G조 원정 5차전에서 2골과 1개 도움을 폭발시켜 바르셀로나(스페인)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기록한 2골로 메시는 올 한 해에만 통산 80골을 넣었다.

지난 12일 스페인 프로축구 정규리그 마요르카전에서 역시 2골을 넣어 한 해 최다 골 기록 역대 2위인 75골의 ‘축구황제’ 펠레(1958년)를 뛰어 넘은 메시는 17일 레알 사라고사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2골, 챔피언스리그 모스크바와의 경기에서 또 다시 2골을 터뜨려 3경기 연속 멀티골을 작성했다.

메시는 이제 이 부문 최고 기록까지 단 5골만 남겨놓았다. 한 해 최다 골 기록은 1972년 게르트 뮐러가 독일 대표팀과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작성한 85골.

메시의 2012년 골 행진은 실 틀 없이 이어져 왔다. 메시는 올 한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68골(프리메라리가 50골, 코파델레이 3골, 수페르코파 2골, 챔피언스리그 13골)을 터뜨렸고 아르헨티나 대표

현재 80골, 펠레 75골 넘어 한 해 최다골 신기록 도전 경기당 1.38골 남은 경기 7 86골 넣으면 새로운 전설



펠레

뮐러

팀에서 12골을 넣었다. 58경기에서 80골이니 경기당 1.38골을 터뜨린 셈이다.

메시는 올 연말까지 리그 5경기, 코파델레이 1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등 총 7경기를 남기고 있어 뮐러의 기록 85골을 뛰어 넘어 새로운 전설을 쓸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메시는 올 초 국제축구연맹(FIFA) 2011년 올해의 선수상(발롱도르)을 3년 연속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은 UEFA 회장인 미셸 플라티니에 이어 역대 두번째. 만약 메시가 호날두나 이니에스타, 사비, 카시야스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내년

초 시상하는 2012년 올해의 선수상을 다시 받는다면 4년 연속 수상의 새 역사도 쓰게 된다. 메시가 올해 86골을 넣어 뮐러를 뛰어 넘는다면 발롱도르 수상이 더욱 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전 4차전에서 셀틱(스코틀랜드)에 달미를 잡힌 바르셀로나는 21일 메시의 2골에 힘입어 4승1패(승점 12)로 G조 선두를 굳혔다. 12월 6일 열리는 벤피카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지더라도 16강에 오른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첼시(잉글랜드)는 ‘이탈리아 챔피언’ 유벤투스에 일격을 당해 16강 자격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첼시는 이탈리아 토리노의 유벤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E조 원정 5차전에서 유벤투스에 0-3으로 완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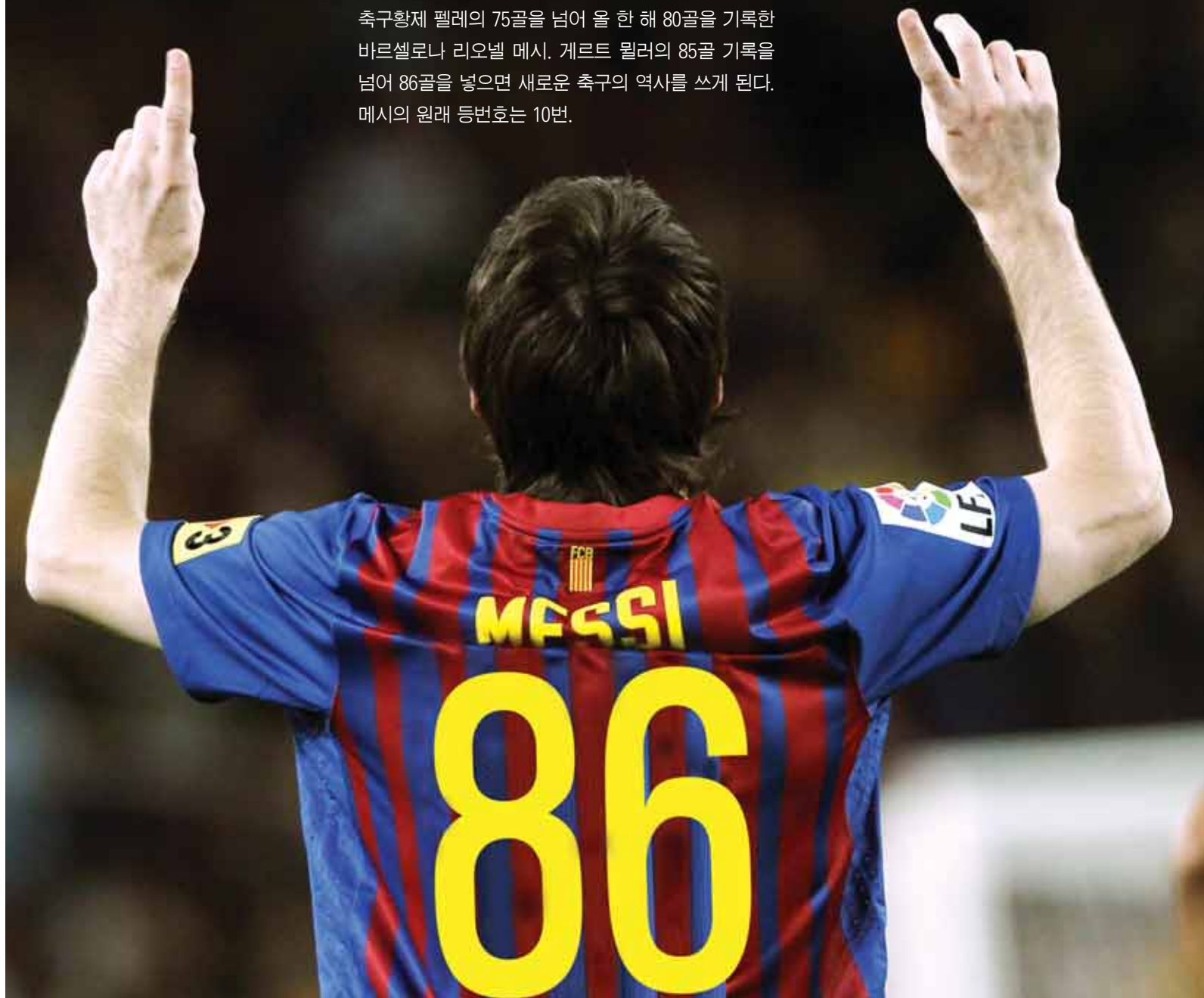
2승3무(승점 9)를 만든 유벤투스는 조 2위로 올라섰다. 1위인 샤흐타르 도네츠크(러시아)와는 불과 승점 1차다. 반면 첼시는 2승1무2패(승점 7)로 3위로 내려앉았다.

첼시는 6차전에서 노르셀란(덴마크)을 반드시 이기고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유벤투스를 꺾어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

16강 진출을 이미 확정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고 터키 원정에 나서 갈라타사라이에 0-1로 패했다.

/유재권기자 jkyou@kwangju.co.kr 연합뉴스

축구황제 펠레의 75골을 넘어 올 한 해 80골을 기록한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게르트 뮐러의 85골 기록을 넘어 86골을 넣으면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쓰게 된다. 메시의 원래 등번호는 10번.



롯데로 갈 KIA 보상선수 누구?

김주찬 영입 1명 내줘야

11월말까지는 결정날 듯

‘다음은 누구?’

올 시즌 KIA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이적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김희걸이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김희걸과 자리를 바꿨던 내야수 조영훈은 특별지명으로 NC로 재이동했다. 아직 한 명이 더 남았다. KIA가 FA(자유계약)로 김주찬을 영입하면서 롯데에 보상선수를 내줘야 한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금전보장(전년도 연봉의 300%), 선수보장(보호선수 20인 외에 1명)을 해야 한다. 이승호·김주찬·홍성흔의 전력누수가 있었던 롯데는 보상선수를 선택할 예정이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영입 공식 신청을 해야 한다. KBO가 계약을 공식하면 3일 안에 보호선수 명단을 원소속 구단에 넘겨줘야 하고, 명단을 받은 측에서는 3일 안에 보상선수를 선택할 수 있

다. KIA는 1~2일 안에 김주찬의 영입을 공식할 예정이다. 보상선수 과정이 속전속결로 전개될 경우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운명의 1인이 결정된다.

NC 특별지명으로 한 차례 슬럼프를 겪었던 KIA 캠프는 또 다른 지명을 앞두고 폭풍전야다. 선수들 사이에 ‘예산 명단’이 작성되기는 하지만 진짜 보호선수 명단은 선수단의 사기를 고려해 비밀로 부쳐진다.

확실한 주전급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5~6자리는 가변적이다. 또 앞선 NC와는 다른 ‘전략적 명단’이 제출될 예정이다.

NC의 지명에 좌완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KIA는 이번에는 내야 보호까지 고민해야 한다.

김주찬의 영입으로 외야의 경쟁구도가 형성된 반면 내야는 홍재호의 군입대를 미룰 정도로 선수층이 얇다. 설상가상 경험 많은 내야수 이현근이 FA로 NC행을 선택했다. 또 3루수 이병호가 뒤늦게 캠프에 합류했

단 부상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롯데가 보강 전력으로 꼽는 선발후보, 파워히터, 빠른 발도 고려해야 한다. 롯데에게 필요한 빠른 발의 좌타자를 고려하면 야수진에서는 신종길, 이우선 후보지만 롯데에서 한화로 이적을 한 경력이 있다. 롯데가 탐낼 만한 전천후 내야수 박기남과 우타자 포 김주형은 전략적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야의 젊은 피 황정립·홍재호가 롯데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내야보호를 염두에 두면 투수에서 고민이 생긴다. 선발진과 확고한 볼펜진을 제외하면 한승혁·박경태·진해수·홍성민이 경쟁자. 일단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한승혁이 명단에 접근한 가운데 두 좌완도 롯데가 노릴 수 있는 자원이자, 부상출신의 진해수는 군필이라는 매력도 있고, 박경태는 결과가 좋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 선발후보였다. 홍성민은 배정부가 돋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축야구장 기념 바닥돌’ 신청자 모집

KIA타이거즈가 ‘신축야구장 기념 바닥돌’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이벤트는 2013년 말 완공될 신축야구장을 기념하고 야구장 건립에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순으로 1만 개를 우선 모집한다.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이름이나 희망문구 등이 새겨져 신축야구장 일층 공간의 바닥에 깔리게 된다.

‘바닥돌’은 두께 5cm의 화강석으로 소형(30×15cm)과 대형(30×30cm) 2가지 종류이며 금액은 소형은 3만원, 대형은 5만원이다. 새겨 넣을 문구는 소형은 12자, 대형은 20자로 한정된다.

모집기간은 내년 6월까지며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덜랜드 지동원

지동원 분데스리가로 가나

아우크스부르크 영입추진

이적 팬 구자철과 한솔밤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에서 뛰는 지동원(21)을 두고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가 임대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동원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21일 “선덜랜드가 지동원의 이적을 위해 아우크스부르크를 포함한 몇몇 구단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C2글로벌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 정도면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선덜랜드에 스티븐 플래처나 루이 사하 등이 버티고 있어 지동원, 코너 위컴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언제 출전기회가 주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동원도 경기를 뭘 수 있는 팀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올림피아 대표팀에서 지동원과 한솔밤을 먹은 구자철(23)이 뛰고 있는 팀이다. /연합뉴스

“K리그 최고 선수 뽑아주세요”

팬타스틱 플레이어 팬 투표

후보는 광주 이승기 등 20명

축구팬이 직접 201 K리그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30일까지 ‘아디다스 올인 팬타스틱 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을 가리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팬이 직접 뽑은 최고의 선수’라는

의미를 담아 ‘FANtastic(팬타스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상은 2009년 제정됐으며 이동국(전북현대)이 2009-2011년 수상자다. 2010년에는 제주 소속이던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받았다.

투표는 모바일(http://m.sports.naver.com/poll/vote.nhn?id=4198)과 PC(http://sports.news.naver.com/event/footballStarK/fantastic.nhn)로 진행되며 1일 1회씩 투표할

수 있다. 후보는 광주 미드필더 이승기 등을 시즌 축구팬이 뽑은 월별 ‘축구스타K’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하는 주간 MVP 선정 횡수 등을 바탕으로 20명이 선정됐다.

추첨을 통해 투표참여자 20명에게 아디다스 첼시 트레이닝 탑·팬츠 세트가 주어지며, 5명에게는 2012 K리그 대상 시상식 초청장(1인 2매)이 돌아간다.

팬타스틱 플레이어는 내달 3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50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용품과 트로피를 받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희은 2012 Dinner Show 2012 송년 디너쇼

2012년 12월 13일(목) 18시 30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프/로/그/램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기념품 증정

티켓가격 ₩165,000원(부가세포함)

예약 및 문의 신양파크호텔 062)228-4711~2 062)221-4101~3



특별출연 송은이